

'돈 되는 정보' 다루는 광주시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될까

30번째 월요대화서 위원회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논의 참석자들 "위원회 위상 재정립·회의록 작성 보완" 등 제안

광주시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이른바 '돈 되는 고급 정보'를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그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공개를 주장하는 측은 시민들과 광주시의 주요 도시계획 정보를 공유할 경우 대상지에 대한 사전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들 입장에선 "그렇다면 돈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그들(도시계획위원회 등)은 투기 등에서 자유로울 정도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 등의 의혹 제기가 충돌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광주시청 다목적홀에서 30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월요대화에는 노경수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수기 광주시의원, 신우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조순철 동신대 명예교수,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광주시 박용수 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위상 재정립과 현행 회의록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위원 위촉 횟수 제한 규정 개선, 시범운영 등을 거친 점진적 회의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시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 참여와 회의 공개를 통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둔 지금이 제도 개선의 적기"라고 회의 공개를 강력히 주장했다.

윤희철 센터장도 "최근 2년간 논의된 안건은 부

동산 투기 가능성이 낮은 아파트 개발 건이 대부분이었다"며 "특히 업체(투자자)들 사이에 이미 공유된 정보조차도 토지소유자(시민)들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 공개 자료를 보더라도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탓에 사실상 비공개 자료나 다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이는 결국 시민이 행정을 불신하게 만든 이유"라면서 "회의록 전체 공개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진상 교수는 "위촉 횟수 3회 제한은 과한 조건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 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신우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회의록을 심의종결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사항으로, 회의 실시간 공개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순철 명예교수도 "부동산 투기 유행 등 위험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한 달이 지나고 공개해야 한다"며 "위원회 회의공개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다. 조용준 명예교수는 "회의 공개 취지는 공감하나 파급력을 감안해 장기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 회의록 공개 방식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경수 교수는 "회의 공개 여부를 떠나 위원회가 시민 사회 신뢰를 얻고 행정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 이미지를 벗기 위해 '위원회 위상 재정립'과 '시의회 실질적인 시민 의견수렴', '위원평가 결과 연임시 반영'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회의(록) 공개에는 찬성하지만 공개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행정과 위원회의 역량 강화, 인력보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월요대화에 참석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 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제도를 만들어 서울시처럼 시범운영을 해볼 것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위원회 성격을 고려한 위원선정위원회 운영방법을 고민하고, 공개될 회의록은 논의내용의 맥락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공하겠다"며 "회의공개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대상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명시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7월 보류된 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견 반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시의회와 협의한 뒤 이달 임시회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2025 세계양궁선수권 준비단 구성

엠블럼 제작·경기장 정비 등

광주시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추진준비단을 문화체육실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양궁대회 준비단은 대회 기본계획 수립, 엠블럼·슬로건 제작과 대회 홍보, 경기장 시설물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양궁대회 준비단을 실무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체육진흥과 소속 '국제스포츠지원팀'을 '양궁대회준비팀'으로 개편하고, 광주국제양궁

장 개보수와 연습·결승 경기장 시설 구축을 전담할 인력(시설직 1명)도 보강했다.

대회 분야별 실행계획이 마련되는 내년에는 양궁대회 준비단을 1개 팀 단위에서 과 단위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광주시 양궁협회, 대한양궁협회와 대회 개최 조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 일원에서 100여개국, 1100여명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 실시

전남도가 무면허 양식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양식 수산물 과잉 생산으로 판매 단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전복, 김, 어류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한 무면허 양식, 면허면적 초과 양식,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남도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뒤 양식 유형별로 맞춤형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복,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현장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피고 해조류 양식장에 대해서는 불법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

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양식장이 밀집한 고흥·해남·완도·진도·신안 등 5개 군 500여 명의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단속 사전예고 및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고 시·군도 자체 설명회를 열었다.

전남도는 또 단속 이후 양식장 관리에 소홀한 시·군에 대해서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제한,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양식 수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에 따른 양식장 물길 트기로 조류 소동을 원활히 해 건강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 불법거래 꼼짝마

광주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광주시는 15일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활동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 영장 청구와 검찰 송치 등 업무를 추진한다.

현재 토지정보과 소속 4명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됐지만, 4명을 추가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 전매, 공인중개사법 위반,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부정 허가 등이다.

광주시는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검찰 송치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전국체전 수송 차량 준비 완료

전세버스·택시 등 3681대

전남도가 10월과 11월 열리는 제 104회 전국체전과 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선수단 수송지원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수송지원 차량은 전세버스 878대, 렌터카 1033대, 택시 1770대 등 3681대로, 전국체전의 경우 개최 1일 전인 10월 12일부터 폐회 다음날인 10월 20일까지 9일간 숙소-경기장 간을, 전국장애인체전의 경우 개최 1일 전인 11월 2일부터 폐회 다음날인 11월 9일까지 8일간 숙소-경기장 간 선수단 이동을 지원한다.

전국체전만 참가하는 해외동포선수단에게는 대회 3일 전부터 폐회 다음날까지 11일간 공항-숙소-경기장 간 수송편의를 제공한다.

전남도는 또 대회 기간 중 도 관계자, 수송업체

합동으로 수송종합상황실을 운영, 차량 배차와 돌발 수급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선수단 수송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수송차량 임차용역 공고를 냈지만 코로나 일상회복에 따른 관광 수요가 폭증하면서 두 차례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회 기간 참가선수단이 편안한 환경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편리한 이동수단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